

## 제 2 장

###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지난 장에서 우리는 “경륜 혹은 세대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이 다른 경륜에 살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대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며 -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제1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알아볼까요? 세대주의자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1.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배울 텐데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령 다윗은 노아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다윗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세대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점을 인지합니다.

1. 사람의 타락 이후에 생긴 차이
2. 대홍수 이후에 생긴 차이
3. 바벨탑 심판 이후에 생긴 차이
4.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에 생긴 차이
5. 율법이 수여된 후에 생긴 차이
6.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생긴 차이
7. 교회의 휴거 이후에 생길 차이(살전4:13-18; 요14:3)
8.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생길 차이(계12:7-12)
9.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생길 차이(계20-22장)

우리는 나중에 각각의 경륜에 대해 배울 때 이 차이점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2.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도 평범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하거나 없는 뜻을 만들어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쳐서 이해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출20:11; 창1장).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6일은 그냥 6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 우주가 24시간의 하루가 여섯 번 지나면서 형성되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6일 즉 여섯 개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창조의 날들은 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 ‘경륜’ - 긴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며 이 경우 ‘날=경륜’은 그 기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달합니다 - 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가 6개의 매우 긴 시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즉 “날은 날이 아니라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한다.” 등).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른 아닌 문자 그대로의 ‘6일’로 받아들입니다.<sup>10)</sup>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계시록 20장입니다. 전반부의 2-7절을 읽어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천년은 그냥 천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천년에다 다른 의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는 데 첫 면에 ‘부시 대통령 4일 예정으로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방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10) ‘날’이라는 단어가 하루 24시간 보다 더 긴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날’(a day)은 야곱의 환난의 때를 가리킨다. 이 날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계12:6,14). 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은혜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날을 뜻한다(벧후3:8-9). 이 날이 하루 24시간만을 뜻할까? 이걸 어떻게? “조지 워싱턴은 자동차나 전화기 혹은 비행기가 없던 날(a day)에 살았다.” 아브라함과 모세,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날’(the same day)에 살지 않았는가?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는 ‘시대’를 뜻하며 그래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은 차가 없는 시대에 살았다.”고 이해한다. 이 경우 ‘날’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날’이 복수(곧 ‘days’)로 쓰였거나 출애굽기 20장 11절(6일), 창세기 1장 13절(셋째 날)처럼 앞에 수사가 붙을 경우 그 의미는 분명 하루 24시간이다. 더 자세한 것은 미들타운성경교회의 홈페이지에서 「6일 간의 창조」(The Six Days of Creation)라는 책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일거야. 중국도 실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일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제쳐 둔 채 엉뚱한 의미를 취하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4일’은 말 그대로 ‘4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이며 바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덕분에 이틀 동안 병원신세를 졌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설마 ‘말’은 ‘코끼리’를 ‘다리’는 ‘머리’를 ‘이틀’은 ‘두 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코끼리’를 말하고자 했다면 왜 굳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 A. 간단한 규칙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접하는 단어들을 - 그것들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항상 문자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의미로 말이 잘 통한다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능히 우주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은 그냥 ‘천년’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들이 통과하는 실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요10:1, 2, 7). 그렇게 이해하려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문을 통해 어떤 장소를 드나듭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문자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들은 실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원자와 그를 믿는 이들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날 밤 빵을 취하사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그 빵이 정말 주님의 몸이었을까요? 그 잔이 실제 주님의 피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습시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말합니다. “이봐, 이게 내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내야.” 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한 장의 사진이 실제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은유 혹은 환유라 불리는 수사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 “이 사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있어. 내 아내 사진이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내 피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4-25).

### B.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놔두고 거기 있는 단어에다 이상하고 비밀스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는 힘을, 넷째는 승리를, 다섯째는 성공을 뜻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 중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장(삼상 17장)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이지 다윗이 집어든 돌들에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위치와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 3.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이 교회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 속으로 태어났습니다(행2장). 그 이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롬9:4-5).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엡2:11-12).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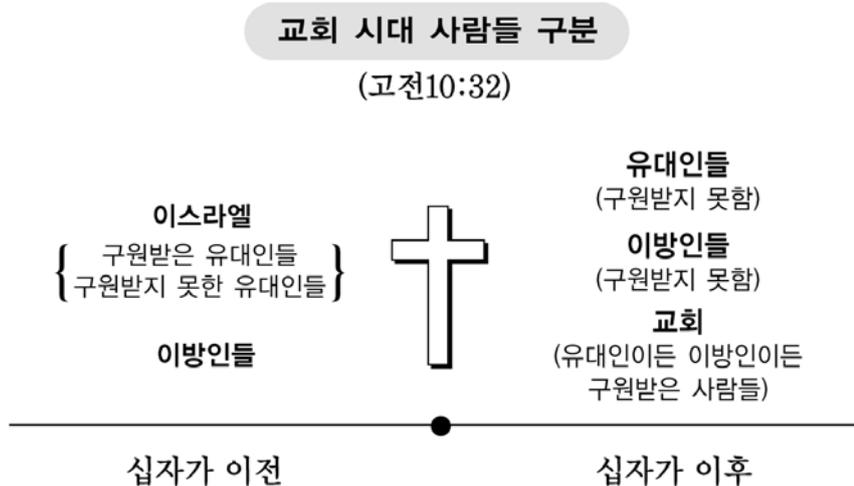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 44 성경의 파노라마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고전12:13).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은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주는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듯이 십자가 이전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을,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의 부산행 티켓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롬11장과 비교).

#### 4. 세대주의자는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머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가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사람과 천사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차이점을 공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여러 사람을 향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전히 무언가 공통된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을 말해 보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기 4장 24절(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2. 사무엘기상 17장 26절(다윗과 골리앗 시대). 하나님은 온 땅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3. 열왕기상 8장 43절(솔로몬 시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4. 열왕기상 18장 36절(엘리야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5. 열왕기하 19장 19절(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왕국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6. 에스겔서 36장 23절(에스겔 시대).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교도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7.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 오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이가 그분께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빌2:10-11).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며(딤후2:4; 요 3:16 등)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요일4:14; 비교 요3:17).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벰전3:20)? 단지 여덟 사람만이 방주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벰후 3:6).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노아의 날 하나님은 실패하신 셈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마7:1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로우심을 보여 주십니다(창6:8-9; 히11:7).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모든 경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 5.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른 바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 - 대부분의 장로교인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륜들이 서로 구분된다고 믿지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않고 단지 두 개의 언약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신학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A. 언약 신학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 - 개혁 신학을 믿는 다수를 포함함 - 은 인류에게 두 개의 언약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은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 (1) 행위의 언약(Covenant of Works)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말합니다.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다.
2. 이것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
3. 아담이 이행해야 할 언약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다.
4.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이었다(창2:15-17).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행위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 (2) 은혜의 언약(Covenant of Grace)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인 은혜의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성난 하나님과 죄인 간에 맺어진 은혜의 협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된 구원자(창3:15)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 (3) 언약주의의 문제점

언약주의 신학자들의 말 중 상당 부분이 옳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안을 마련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약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언약(특히 은혜의 언약)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이 것처럼 중요하다면 아마도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며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언약을 언급하나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창9:8-17)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창17:1-4)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3.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출19:5-8)
4.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삼하7장)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 '새 언약'이라고 불림 - (렘31:31-34)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있지만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주의 신학을 믿는 분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 '은혜의 언약'에 비추어 이해하려 합니다. 또 어느 경륜에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은혜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엡1:6)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1:12).

이 영계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4).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죄 받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파라오의 경우 - 롬9:17-22)! 사람이 구원받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 B.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극단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극단적인'이란 뜻을 가집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경륜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성경의 차이점만을 부각시켜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다음의 질문에서 주된 문제가 야기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세대주의자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행2).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교회의 시작을 그 뒤로 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도행전 13장(AD 47년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도행전 28장(주후 60년경)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성경의 몇 부분은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침례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 만찬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말함).
3.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28장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으로 간단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핍박은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3절; 9장 1-2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면 교회는 그때 이미 존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핍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이나 28장은 바울이 구원받은 후의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회의 시작 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 6. 용어 이해

다음은 하나님의 경륜들을 보여 주는 그림이고 그 안의 번호들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1. 십자가 사건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행1장)
3. 오순절 성령강림, 교회의 시작(행2장)
4. 교회 시대(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됨 - 고전12:13; 행2:47 참조)
5. 교회의 휴거(요14:3; 살전4:13-18) -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감
6. 7년 환난기(땅에 큰 고통이 임하는 때) - 후반부 3년 반은 흔히 '대환난'으로 불림(마 24:21; 렘30:7)
7. 환난기의 중간(단9:27; 마24:15)
8.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심(계19장; 마24:30)
9.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천년동안 통치함(계20장)

위의 그림을 이용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질문 1 -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위 그림의 5번 참조)

휴거의 시기에 대한 견해

환난 전 휴거(*) <sup>11)</sup> Pre-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환난 중간 휴거 Mid-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 중간에 교회가 휴거된다.
진노 전 휴거 Pre-wrath Rapture	7년 환난기의 3/4 쯤 되는 시점에서 교회가 휴거된다.
환난 후 휴거 Post-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 이후에 교회가 휴거된다.

질문 2 -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시는 때는 언제인가?(위 그림의 8번 참조)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전천년설(*) Premillennialis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에 임하신다. '천년'(millennium)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의 천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후천년설 Postmillennialism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이 왕국에 들어오고 지상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신다.
무천년설 Amillennialism	'왕국'이나 '천년'은 실제로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문자적인 지상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을 묘사한다.

11) 위의 표에서 (\*)는 성경적인 견해를 가리킨다.